

PREVIEW

March / 교육청

3

P R E V I E W • • • • •

3 월 교 육 청 • • • • •

• • • • •

• • • • • P R E V I E W

• • • • • 3 월 교 육 청

• • • • •

• • • • •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1 ~ 0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어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밑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춡고 쓸쓸함이 몽당뱃자루 같은 날
운암댐 소릿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춡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
나 얇은 것이냐

[A]

[B]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C]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01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02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 김광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의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싸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하고 총혈 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있다.....”

- 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군.
- 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0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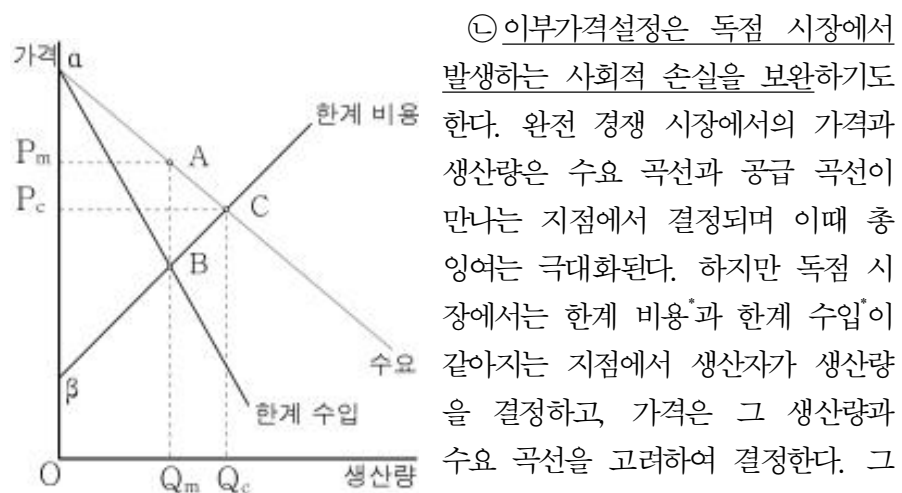
- ①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짐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새들처럼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01 ~ 0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림>

㉠ 이부가격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때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되고 가격은 P_m 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다리꼴 OP_mAQ_m 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BP_mAB ,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 aA$ 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_m 에서 Q_c 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 만큼 늘어나게 된다.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01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이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 ③ 이부가격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 ⑤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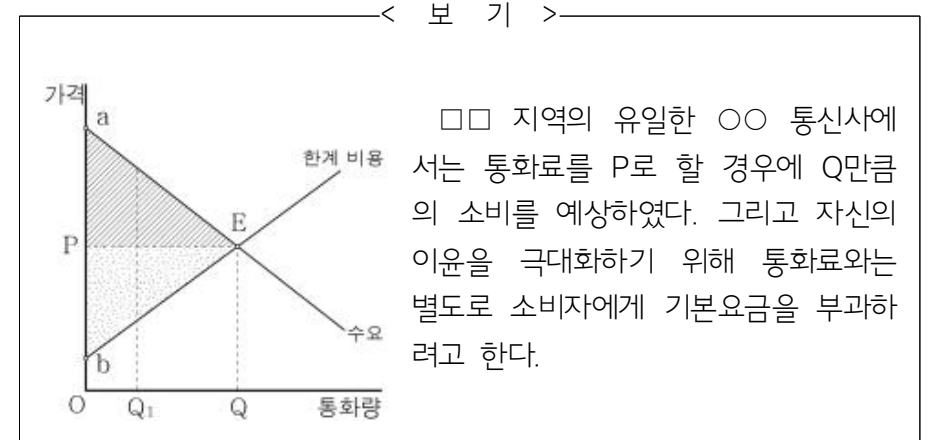
02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지역의 유일한 △△ 골프장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은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징수한다.
- ② 한시적인 기간 동안 ▽▽ 마트에서는 한 개에 800원 짜리 라면을 다섯 개 사면 3,800원에, 열 개 사면 7,400원에 판매한다.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 패스트푸드점은 3,000원 짜리 햄버거와 1,000원 짜리 콜라를 함께 묶어 3,500원에 판매한다.
- ④ 어느 지역의 유일한 ○○ 철도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상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 ⑤ 어느 지역의 유일한 ◇◇ 수도사업소는 수도물 사용량 100톤을 기준으로 추가 소비에 대하여 생산 원가만을 부과한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지역의 유일한 ○○ 통신사에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② ○○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_1 일 때 통화료로 P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다리꼴 $OP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 에 해당할 것이다.

0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량이 늘어나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겠군.
- ②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③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생산자의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겠군.
- ④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구입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겠군.
- ⑤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05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감정하면
- ② 배정하면
- ③ 시정하면
- ④ 책정하면
- ⑤ 제정하면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1 ~ 0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 열쇠를 쫓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서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서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 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넛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

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는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길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길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 현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육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촉수를 다시 갈아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과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과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몽탕이로 간혀 있던 종이 몽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0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1 ~ 0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다양한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의 ㉠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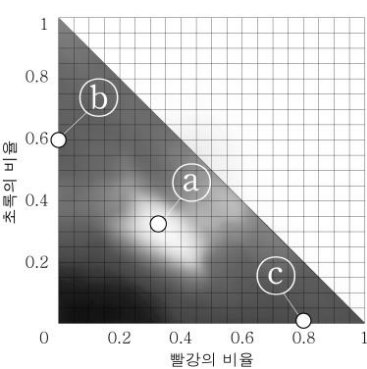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 ~ 780nm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 ~ 700nm대의 빨강(R), 500 ~ 600nm대의 초록(G), 400 ~ 500nm대의 파랑(B)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한다. <그림 1>처럼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색광의 3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 한다.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한편 자홍, 청록, 노랑은 색료의 3원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색료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만들어진다.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감법 혼합'이라고 한다.

가법 혼합의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백색광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흰 스크린의 한 지점을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대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은 흰색이 되고,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S(색) = rR + gG + b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은 빨강 필터를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을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



<그림 3>

눈 값, 즉 빨강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r, g, b의 합은 1이 되며, r, g, b를 ㉢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가법 혼합의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은 색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색 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 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 내는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또 색 삼각

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또 색 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서 출발하여 ㉤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감법 혼합의 원리는 한 개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자홍, 청록, 노랑의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켜 흰 스크린에 닿게 하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색광에서 필터의 색에 따라 특정 부분의 파장은 필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색료의 3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것이다.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 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화가가 빨강과 파랑 물감을 섞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파랑 물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랑 물감의 입자들은 서로가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 안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감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태양 빛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사용했다. 모네는 그의 대표작인 ㉦ <인상: 해돋이>에서 물감을 섞어 만든 다양한 색으로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 그런데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감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서 가법 혼합되어 제3의 색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시냐크는 그의 대표작인 ㉨ <우물가의 여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찍어 병치함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므로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하였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이처럼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색에 대한 이들의 탐구 정신은 후대의 화가들이 다양한 회화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영감을 주었다.

* 명도: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방출하는 광량이 많을수록 높음.
* 채도: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음.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색광과 색료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중시한 회화 유파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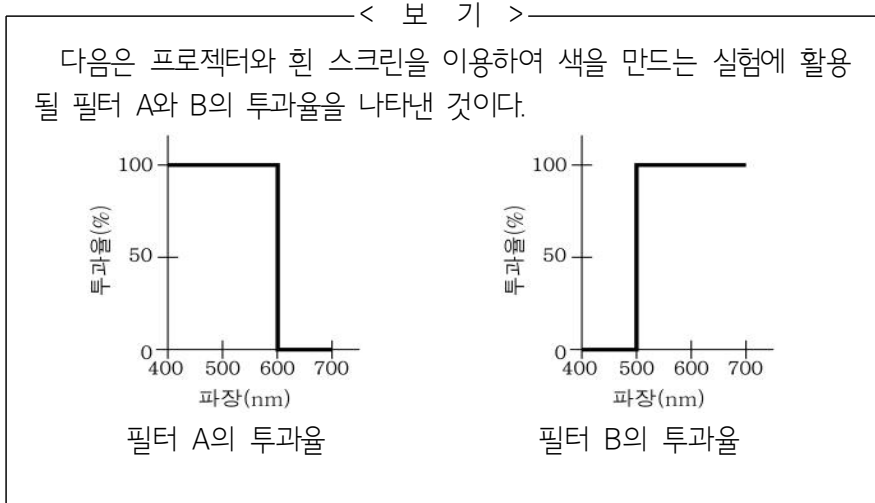
0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은 각각 세 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 ③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 ④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는 원색인 청록 물감의 색이 지닌 명도보다 낮아진다.
- ⑤ 가볍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면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②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 필터 B에 투과시키면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③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킨 후,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 ④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는 경우, 두 필터의 배치 순서를 바꾸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색이 달라진다.
- 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보다 필터 A의 투과율을 50%로 낮춘 필터를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가 더 낮다.

04

윗글의 <그림 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r, g, b는 ㉠에서 모두 0의 값을 나타낸다.
- ② ㉠과 ㉡를 혼합하면 ㉢보다 채도가 높아진다.
- ③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 ④ ㉡와 ㉢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색 삼각형으로 그 혼합 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 ⑤ g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과 만나는 지점에는 자홍이 위치한다.

05

윗글의 ㉠, ㉡와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흐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이는 대상의 순간적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려 했다. 고흐는 이를 위해 물감을 섞어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원색과 중간색만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인 ㉠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는 이런 그의 화풍이 잘 담겨 있는데,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의 나뭇잎과 자홍빛 테라스의 대비를 통해 그의 눈에 비친 화려한 밤거리의 순간적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 ① ㉠과 ㉡는 모두,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가볍 혼합 원리에 의해 채도가 높아 보이겠군.
- ② ㉠과 ㉡는 모두, 원색 점들을 병치하여 물감의 혼합으로 색이 흐릿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겠군.
- ③ ㉡와 ㉢는 모두, 보색 대비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려 했겠군.
- ④ ㉠과 달리, ㉡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겠군.
- ⑤ ㉡와 달리, ㉠은 대상을 그리는 데 사용된 물감의 색과는 다른 제3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겠군.

0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② ㉡: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
- ③ ㉢: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④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⑤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P R E V I E W • • • • •

3 월 교 육 청 • • • • •

• • • • •

• • • • • P R E V I E W

• • • • • 3 월 교 육 청

• • • • •

• • • • •

PREVIEW

3월 교육청